

지방공사 빛 2천억 감소했는데...광주·전남 공기업은 증가

경영평가 제도 개선 '효과'...남은 부채 52조2천억원

광주·전남, 하수관거 등 필수사업 진행 976억 늘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수조원씩 늘어나던 지방공사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하수관거 사업을 비롯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경도 리조트 개발 등으로 부채가 다소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결과를 보면 2013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는 73조9000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1.9%)이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253곳)과 '지방공사·공단'(141곳)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지난해 기업 전체 부채가 증가한 것은 상하수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 직영기업의 부채는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이후 지방공기업 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52조4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공사 부채는 지난 2009년 42조4000억원에서 매년 수조원씩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방공사 부채 감소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사채 및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한 성과라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사의 추가출자, 보유재산 매각,

미분양물량 해소, 사업구조조정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77.1%에서 73.8%로 떨어졌다. 지방공사 부채의 66%를 차지하는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합산액도 2300억원 가량 줄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2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245억원으로 245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필수사업인 하수관거 사업비 380억원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11년 6015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6846억원으로 731억원이 늘었다. 공사 측은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 미분양 물량 판매 등을 통해 6385억원, 오는 2017년에는 전체 부채를 5481억원까지 줄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와 전남도 공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46%와 67%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8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는 의미다.

시·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채가 조금 늘긴 했지만, 부채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건전한 편에 속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 줄이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여수 현장점검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9일 오전 여수 남산초등학교 앞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장을 찾아 비탈면 안전 조치 등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LH 분양가 낮춰 '미분양 털기' 안간힘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그동안 분양이 안 돼 애를 먹었던 빛가람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결국 조성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앙공기업이나 지역기업,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미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성가는 m²당 42만원이지만, 공급가는 35만 1000원으로, 무려 6만9000원이나 낮다.

9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LH공사 등에 따르면 전체 공급대상 용지 11필지 45만 2635m²의 32.9%에 해당하는 14만9210m²를 5개 업체에서 m²당 35만1000원에 매입하겠다고 신청,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지 시설 및 기능,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광주도시공사가 조성한 곳이 3필지 10만4277m², LH 1필지 3만9146m², 전남개발공사 1필지 5787m² 등이다. 이들 개발기관들은 공급가격으로 분양

하면서 102억9549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장기간 판매되지 않으면서 쌓이는 이자 부담과 현금 유동성 위기보다 국토교통부 권고처럼 감점평가액으로 판매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들 기관들은 나머지 클러스터용지 30만3525m²에 대해서도 필지를 작게 쪼개서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오는 10월께 2차 분양을 통해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장성항 뱃길복합마을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존 3.3m²당 92만원에 공급했던 토지를 3.3m²당 평균 67만원대로 대폭 인하해 공급하기로 하는 등 '미분양 물량 털기 판매'는 계속될 기세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 활성화를 위해 (주)피데스하우징과 협약을 체결해 산공법을 적용한 현대식 한옥 '신한가 호연당'을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제부시장, 지역·정당 떠나 영입"

윤장현 시장 "심고초려 불사"

광주시가 민선 6기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정부직 경제부시장의 선임 시기를 늦추더라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광주발전 위해 도울이 되는 인물을 영입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임 경제부시장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 경제부처의 현직 관료를 영입하려 했으나(퇴임시거나 지방이라는 이유 등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영입 대상의 폭을 좀더 넓혀 새누리당측에도 인물 추천을 부탁하고, 영남출신이라도 광주발전을 위해 보탬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삼고초려가 아닌 심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오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7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힌 뒤 "경제부시장은 광주가 아닌 중앙(부처, 정치권 등)을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이야 하며, 광주시의 주력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예산 등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경제부시장 자리가 조금 비어 있다고 해서 광주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력을 갖춘 분을 모셔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부시장 인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과 퇴임 지방관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광주일보 4

일자 3면>과 관련, 민선 6기 인사 방침인 학연·혈연·지역 배제 방침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4일 임기가 만료되는 흥기남 도시공사 사장의 후임 인선도 진행중이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첫 공기업 임원 인사다. 광주시는 이번주 내로 임원추천위원회 지침을 도시공사에 전달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중 공고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내달 초·중순께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현재 공직인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의 선임도 서두르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주택공사 부사장 출신인 이희옥씨를 제외하고 시청 간부 출신과 정치인 출신이 많아왔으며, 경영본부장 등도 시 간부 출신이 '낙하산' 형식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공기업 내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선임이 경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시장'인 윤 시장이 기존 낙하산 인사에서 벗어나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고용국장 임영일·정책기획관 정여배



박향 박남연 박창기 임영일 정여배

광주시, 국장급 승진·전보 인사

광주시는 9일 국장급(3급·부이사관) 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투자고용국장에 임영일 동구 부구청장이, 정책기획관에 정여배 교육지원과장이 각각 승진·전보됐다. 박흥표 투자유치지원관과 이상배 도시디자인과장도 각각 승진해 U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됐다.

임영일 투자고용국장은 문화수도에 어울리는 관광·문화수도정책관을 거친 문화통으로 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투자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정여배 정책기획관은 참여정부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총괄·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한 기획 전문가로 통하며, 교육지원과장·문화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박흥표 U대회조직위 파견자는 기업지원과장과 의회 의사담당관, 투자유치지원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U대회 지원본

부를 맡게 됐다.

특히 이상배 승진자는 광주시청내 국장급 중 최연소인 44세로, 도시철도 기술담당관과 도시디자인 과장 등을 역임한 젊은기술 인재로 꼽힌다. U대회조직위에서는 이 같은 강점을 살려 시설운영본부장에 배치됐다.

이와 함께 ▲복지건강국장에 박향(서구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박남연(U대회조직위 기획본부장)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U대회조직위 지원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임희진(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U대회 시설운영본부장) ▲서구 부구청장에 정민근 안전행정국장이 각각 전보됐다. 김정훈 정책기획관은 U대회조직위 기획본부장으로 파견됐다.

한편 시는 4급 이하 승진·전보인사는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임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망은 있는데 공사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장기예금 금리 1년 3%)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본점 671-5000 안림지점 652-9203 할산지점 364-7557 주유사업소 720-2880

서양새마을금고